

지역 소식통

김제 중기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시행

김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이며, 지원회항 업체는 취급 금융기관(공고문 참조)을 선정해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김제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 4월말 대상업체들에게 개별 통보 예정이다.

김제시는 작년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용자 가능하며, 용자금 이자의 4% 이내로 이차보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원자재 상승 등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재능공유클럽
모두다클래스 운영

누구나 한두 개 정도의 관심사는 가지고 있다. 개중에는 나만의 노하우를 여길만한 부분도 분명 있기 마련이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문운걸)에서는 이렇듯 개인이 가진 관심사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원데이 클래스로 기획해 이웃과 공유하는 '완주재능공유클럽 모두다클래스'를 운영한다.

22일부터 참여자 접수를 시작하는 '완주재능공유클럽 모두다클래스'는 재능(관심사·취미·취향)을 공유하고자 하는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재능을 공유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최대 20만원의 재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 과정 또한 대폭 간소화해 남녀노소 관계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문운걸 센터장은 "재능공유클럽은 개인의 관심사를 매개로 지역사회를 잇는 기반"이 된 다며 "재능공유를 통해 지역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채용과정 특혜 전혀 없었다”

박준배 김제시장, “민선7기 청원경찰 채용 ‘無’… 필요시 공개채용으로 확약”

박준배 김제시장은 23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모 방송사에서 제기한 채용과정에서 대가성 취재와 관련, 반박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청렴한 공직생활의 신념과 35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정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경제도약이란 가치를 내걸고 민선7기 김제시장으로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과 비서 채용비리 의혹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민선6기에는 총 12명의 청원경찰 특별채용이 있었으나 본인이 취임한 민선7기에는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 한명의 청원경찰도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청원경찰 채용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임용하여 투명한 인사를 통한 인사정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9월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직인과의 공감콘서트를 갖고 '투명한 인사'에 대해 다시한번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 취임전 청렴도 4등급을



박준배 김제시장은 23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모 방송사에서 제기한 채용과정에서 대가성 취재와 관련, 반박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2등급으로 상승시켰으며 인사업무에서는 3년 연속 10점만점을 받아 부정 청탁없는 인사정의를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로 지난 연말 김제시 공무원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김제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청렴패를 수상하였으며 또한 12월 9일에는 UN국제부패방지위원회 기념행사에서 이시대를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청렴시장에 흠집을 내려는 온갖 중상모략, 흑색선전, 마녀상냥에도 "공정과 상식, 청렴과 성실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해온 본인의 확고한 철학을 토대로 시민의 행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묵묵히 정의의 길을 걸어 가겠다"며 네거티브 전략에 빠지지 말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농공단지, 이달 중 준공인가

이달 말 마무리... 완료시 소유권 이전 가능 분양 활성화

완주군 농공단지가 이달 준공인가 예정이다.

완주군은 1,700여명의 고용창출과 1,5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완주농공단지의 준공인가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완주농공단지지는 삼례읍 수계리 인근에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사업비 589억원이 투입됐다.

총면적 29만8,312.9㎡(산업시설용지 23만3,367㎡, 지원시설 6,625.7㎡, 공공시설 5만8,320.2㎡)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11월 조성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최근 완료됐다.

분양대상인 산업시설 용지 58필지 중 준공인가 전 분양신청은 48개 필지

(16만7,623㎡)로 분양신청률 71.8%를 기록했고, 이중 33개 필지(10만7,890㎡)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46.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완주군은 준공인가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져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농공단지지는 호남고속도로(2km 내), 익산호남고속도로(1km 내)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완주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뛰어난 입지여건이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완주군 공영개발과장은 "공장용지로 최적의 입지인 점을 부각시켜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도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지역 인재 키우는데 쓰시길”

전북은행,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억1000만원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3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억 1천만원을 (재)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전북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김제 사랑장학재단 기금을 운용관리하게 됨에 따라 매년 1억,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다.

이번 기탁식에는 김경진 부행장, 강장오 김제지점장 등 전북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식에서 김경진 부행장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김제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큰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꾸준히 실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성문 사무국장은 "장학금 기탁으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 주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만족”

자기개발 만족도 5점 만점에 4.5점... 삼례생활문화센터, 이달부터 내실 도모

완주군 주민들은 각급 단체와 기관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개발에 나서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 등 각 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각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규와 중·단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소통하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삼례생활문화센터가 작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동안 노래교실과 퍼포먼스 난타, 노래교실, 라인댄스 등 9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결

과 '자기개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해 3개 문화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추세에 맞춰 실수요를 반영한 신규개설 강좌의 '자기개발 만족도'는 4.64점에 육박, 기존의 강좌(4.16점)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퍼포먼스 난타와 색소폰 등 신규 강좌의 경우 4.36점을 기록, 기존 강좌(4.1점)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게는 3개월에서 최고 4개월까지 매주 1~2회 참석해야 하는 9개 프로그램의 평균 참석률은 84.6%를 기록, 자기개발 만족도 등이 높은 참여도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명이 수강했던 13주 운영의 한 프로그램은 강좌 운영기간을 5주 연장했음

에도 95.6%의 참석률을 기록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삼례생활문화센터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주민들의 자기개발 만족도를 높여준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개 프로그램에 140여 명이 모집, 이달부터 상반기 운영에 들어갈 내실을 도모하기로 했다.

센터는 또 토요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가족 단위 실용적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문화참여 영역을 확장하고, 주민이 공감 등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의 일상을 문화와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 주민 연계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백구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위 발족

김제시가 산업재생을 위해 지난 22일 기업인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거버넌스 구축과 백구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식을 진행, 농공단지 활성화 기여를 위한 발돋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시, 유관기관, 민간이 하나되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보호,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민·관 협력 기틀 마련에 노력하기 위한 운영을 계획했다.

또한 백구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의 경영 및 근로자, 지역주민의 애로 타개

와 김제시 거점 농공단지 역할과 배후 농공단지와 연계·상생 등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백구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추진과 월촌농공단지 휴폐업공장 재개발 후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예산 공모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